

“지역 미술 진흥은 가장 중요한 미션 미디어아트 쇼윈도 역할도 할 겁니다”

취임 한달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

지난달 취임한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 26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가가 아닌 큐레이터 출신이라는 점,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화제가 됐다.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전 관장은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미술관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미술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미술관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21세기는 미술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미술관 공간과 개념에 맞게 콘텐츠도 진화해야 하고, 조직도 변화하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활동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그 역할을 맡게 돼 영광입니다. 소통 문제 등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전국 공립미술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광주 시립미술관은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역 출신 작가들이 관장을 맡으시면 미술관의 토대를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쌓인 전통 위에 전문가적 관점과 아이디어를 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술관을 향한 발걸음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관장은 미술관의 중점 사업으로 일단 유네스코 선정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에 걸맞는 ‘미디어 아트의 쇼윈도와 허브 역할’, 남중화의 본산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한국화의 전통 계승과 혁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꼽았다. 전 관장은 전시, 수집, 교육, 보존 등 미술관 고유 역할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미술관 운영 위원회, 예술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강조했다.

“21세기 미술관은 생산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



미술관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 콘텐츠 진화·조직 변화 필요 작가 출신 관장이 쌓은 토대 위에 전문가적 관점과 아이디어 담고 다양한 세대·계층 위한 전시 외국인 필수 방문 코스 만들 것

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싶은가가 중심이 되는 시대죠. 다양한 통계와 조사 등을 활용해 전시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즐기는 밀레니엄 세대

나 요즘 미술관의 주 관객층으로 떠오른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 타겟을 염두에 두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는 또 “지역 미술의 진흥은 지역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호남 지역 컬렉션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림을 수집하고 지역 역사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광주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컬렉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역 작가들의 해외진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전 관장은 ‘사실상 한 몸’인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관장은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위한 상설전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는 등 두 기관과 인연이 있다.

전 관장은 미술관은 지역 문화관광시설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핵심적 문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외지인들이 광주를 찾을 때면 꼭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술관’이 되도록 하고 전문화·집중화를 통해 외국 관람객들도 들러 보고 싶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을 뗄 거라고 말했다.

프랑스 예술가 로베르 필리우의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 전 관장은 삶속에 들어가는 미술관을 강조했다.

“미술관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시를 보기 전과 후 각기 다른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바꾸는 것, 그게 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출신인 전 관장은 세종대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원 미술행정 및 큐레이터십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 세종문화회관 전시감독, 2015~2018년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전시감독 등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日 우키요에로 본 에도 최신 유행

28일까지 亞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일본 전통화 우키요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서 ‘옛 도쿄, 에도의 스타일: 우키요에 인물화로 보는 에도의 최신 유행’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일본국립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동북아시아문화학회·부경대학교 인문학연구소(HK+) 사업단과 공동 개최한다.

2004년부터 일본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우키요에 순회전시회를 열고 있는 일본국립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우키요에가 지닌 미술적·조형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디어로서의 특징, 회화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수 있는 40여점의 작품을 엄선, 이번 전시에 선보이고 있다.

우키요에(Ukiyo-e)는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풍속화로서 주로 목판으로 제작해 찍어내는 일본의 독특한 전통화이다. 여성을 주제로 한 미인화와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배우화(야쿠사)가 대표적이며 당대 일본인들의 생활상과 유행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잡지나 화보집과 유사한 기능을 했다.

전시는 1부 ‘가부키 속 남자들’, 2부 ‘에도의 미인들’, 3부 ‘야쿠사’와 미인화의 대가 사카쿠와 우타마로’로 구성된다.

특히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던 미인화의 명수 기타가와 우타마로와 가부키



기타가와 우타마로 작 ‘간세이 시대의 세 미인’

배우를 주요 소재로 삼아 인물의 개성을 한껏 드러냈던 야쿠사화의 귀재 도슈사이 사카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우키요에 화가들에 대한 정보도 전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 미디어아트 평화 물결

광주문화재단 이이남 전 11월까지 시청·문화전당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평화의 물결”

광주문화재단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이이남 미디어아트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청 로비와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이 ‘2018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으로 진행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다.

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펀드는 전국 광역문화재단이 협력해 지역 기업 및 예술인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특성을 살려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와 기업을 연계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 7000만원과 지역 기업에서 유치한 기부금 7천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기금 이외에 메세나 기부금 등 외부 재원을 유치해 실행하게 됐다. 이이남 작가의 프로젝트는 지역 기업 3개사가 총4000만원을 후원해 성사됐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이이남은 이번 프로젝트에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서 미디어 기술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품을 연출했다.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광주만의 특별한 평화 메시지를 담은 홍보전시를 구상한 것. 시청 로비에 자리 잡은 세계의 기둥은 수영장 트랙으로 변모해 트랙을 따라 경기하는 선수들과 다이빙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 파사드에서 흐르는 빛의 물결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는 11월중 안유자 작가의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시민과 ‘공감’ 전



함영순 작 ‘향기’

25~31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전남 여성작가회(회장 함영순) 정기 회원전이 25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35번째 맞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회원들과 더불어 시민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共感’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회원 40명과 시민 10명이 출품했다.

1982년 전남 남경화랑에서 ‘광주여류화가 초대전’이라는 타이틀로 첫 전시회를 열었던 광주·전남 여성작가회는 기존의 서양화 작가 중심에서 조소, 공예 등 영역을 확장하고 광주 뿐 아니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까지 영입해 ‘광주·전남여성작가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올 여름에는 전남대병원 초대전으로 ‘사랑·나눔’ 자선전 아름다운 사랑·희망의 빛’전을 진행, 마련한 기금을 환우·취약여성 돕기에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개막일 오후 5시부터 ‘생활소품(에코백) 만들기’도 진행한다.

참여 작가는 강숙자(광주미술상 운영위원)·고정희(한국미협 고문)·이정주(전 광주대 교수)·최강희·강은주·고운숙·김귀덕·김송민, 김수옥·김화영·기유란·노정숙·변경선·선현옥·손정희·송유미·오윤경·이중숙·이지은·임경옥·안나겸·정금자·정미희·정선·주미희·황경숙씨 등이다. 문의 010-4803-628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방수 · 난연소재 · 맞춤형 디자인 · 2중복합단열 ·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